

한국 경제심리지수: 심리 소폭 개선됐지만 비제조업 중심이고 수요 회복은 아직

2026.08.26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국 경제심리지수(ESI)가 8월 99.4로 전월 대비 1.5 포인트 올랐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이지만, 6월에는 0.7 포인트 하락했던 만큼 아직 방향성을 완전히 확인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만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어, 원지수의 등락과 무관하게 기업과 가계의 기초적 체감은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다만 E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CBSI) 모두 여전히 100을 밑돌아, 장기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내용을 뜯어보면 이번 개선의 질은 그다지 튼튼하지 않다. 전체 CBSI 상승을 이끈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비제조업으로, 매출·자금사정·수익성(채산성) 세 항목이 고르게 좋아졌다. 다만 업황 항목만은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장기평균에도 못 미쳐, '전 분야 개선'이라 부르는 어렵다. 제조업은 오히려 상승폭이 줄었는데, 그나마 오른 것도 재고 감소와 자금사정 개선 덕분이었다. 반면 업황과 생산은 나빠졌고, 신규수주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을 뿐 개선되지는 않았다. 즉 수요가 살아나서 기업 심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재고와 자금 사정 같은 부수적인 요인이 지수를 끌어올린 셈이다. 가계 쪽도 수입 전망과 소비지출 전망이 모두 나빠져, 이번 개선은 기업 체감에 국한된 흐름으로 봐야 한다.

정책적으로 이번 지표는 중립적으로 해석한다. 심리가 저점을 지나는 정황은 긴축 기조를 이어가도 될 여력을 소폭 뒷받침하지만, 개선의 원천이 수요가 아니라 재고·자금·비용 측면이라 물가를 새로 자극하는 구조는 아니다. 특히 원자재 구입가격과 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기업 체감은 오히려 상승세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일부 우려와는 다소 어긋나는 신호다. 다만 이 역시 '가격이 내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정도이므로 과도하게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달 개선을 이끈 재고·자금 요인이 다음 달 전망에서는 더 이상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반대로 비제조업의 개선 흐름은 다음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있다. 결국 다음 달 발표에서 업황·생산·신규수주 같은 수요 관련 항목이 실제로 플러스로 돌아서는지가 이번 심리 개선이 진짜 경기 반등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핵심 관전 포인트다. 그전까지는 이번 결과를 '저점을 지나는 정황'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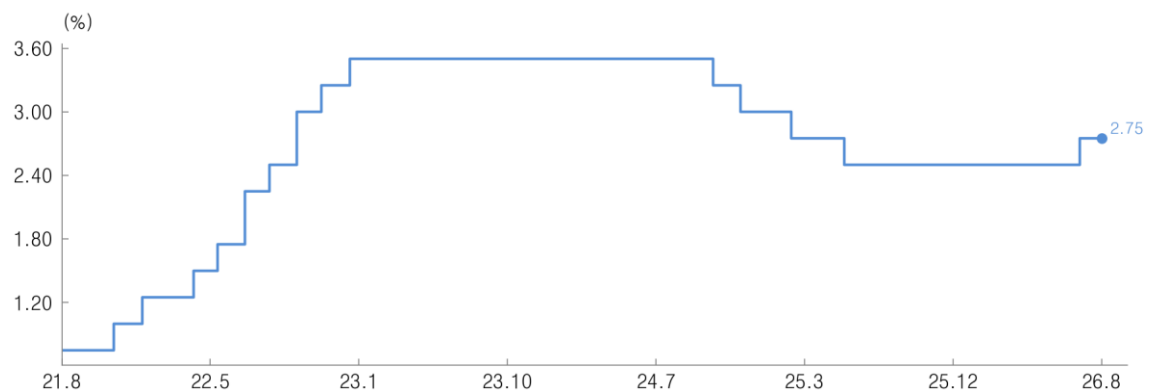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26 (이번)	8월 기업·가계 체감경기는 완만하게 개선됐지만, 그 개선의 속을 들여다보면 수요가 살아난 게 아니라 채고와 자금 사정, 비용 부담 완화가 만든 결과에 가깝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정황으로는 볼 수 있으나 아직 반등이라 부르기엔 이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도 이번 지표는 힘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중립적인 재료로 보는 게 맞다.
2026-07-30	7월 전(全)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0.8포인트 오른 98.5를 기록했고, 경제심리지수(ESI)도 1.1포인트 상승한 97.9로 집계됐다. 숫자만 보면 기업 심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읽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꽤 다르다. 이번 반등은 사실상 제조업 한 부문이 홀로 끌어올린 결과다.
2026-06-25	제조 수출의 반동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비제조·내수 기업심리가 뚜렷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다음달 전망의 급락(-2.4p CBSI, -2.7p 비제조)은 기업들이 성장 모멘텀 약세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8월 ESI·CBSI 개선의 속내 — 헤드라인 vs 실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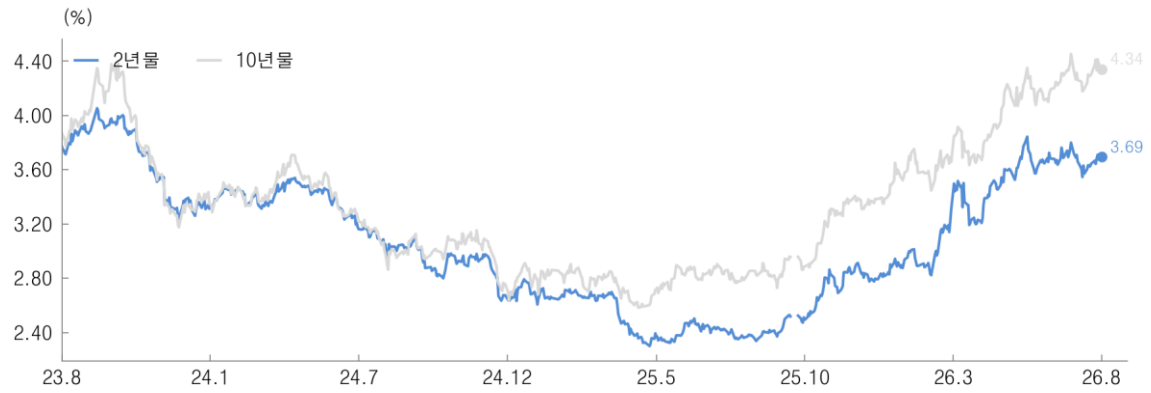
지표	7월	8월	변화	맥락
ESI (원지수)	97.9	99.4	+1.5p	두 달 연속 상승, 아직 100 밑돌아
ESI 순환변동치	96.5	96.9	+0.4p	7개월 연속 상승, 기조적 개선 신호
전산업 CBSI	98.5	99.6	+1.1p	2개월 연속 상승, 여전히 100 미만
제조업 CBSI	103.2	103.8	+0.6p	상승폭 축소, 채고·자금사정이 견인
비제조업 CBSI	95.2	96.7	+1.5p	매출·자금·채안성 개선, 업황은 73으로 정체
제조업 신규수주 BSI	92	92	0	변동 없음, 수요 회복 아직 미확인
원자재구입가격 BSI	129	123	-6p	상승 응답 비중 둔화, 비용압력 완화 신호
가계수입전망(ESI 기여도)	+0.3p	-0.3p	-0.6p	기업 심리와 달리 가계 체감은 오히려 악화

한국 기준금리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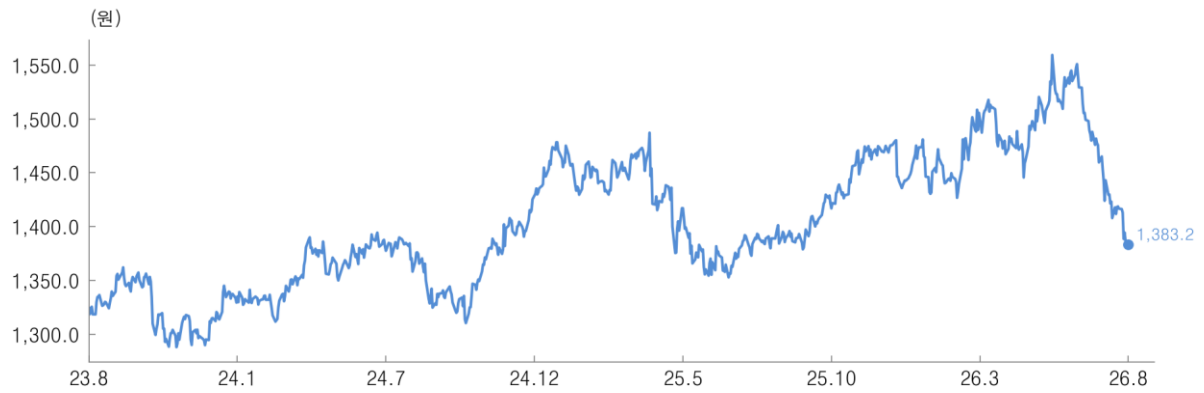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원/달러 환율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